

아직도 여운이 남는 영화

6학년 8반 임재현

나는 학교에서 '알라딘'이라는 영화를 봤다. 나는 '알라딘'실사판을 보기 전에 애니메이션으로 '알라딘'을 미리 봤었고 애니메이션 '알라딘'도 재밌었기에

실사판도 재밌을 거라 생각했지만 영화를 본 뒤 역시 '애니'보다는 '실사'가 더 재밌다고 생각했다. 나는 영화 감상문을 써야해서 이 3인물 중에 골랐다.1'알라딘'2'자스민'3'자파' 나는 '자스민'을 소개할 것이다. 먼저 '자스민'의 성격은 자신의 외모 평가를 하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는 성격이다. '자스민'의 이런 성격이 제일 보인 부분은 다른 나라의 왕자가 자신의 외모평가를 할 때, 자스민은 자리를 떴다. 더군다나 '지니'가 알라딘을 왕자로 변신시키고 '자스민'의 앞에 갈 때 '지니'가 노래를 부를 때"얼굴이 예쁜신 아가씨를 보러왔다." 라고 하자 '자스민'은 또 자리를 떴다. 이 장면들에서 '자스민'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말을 싫어한다는 것이 잘 들어났다.그리고 백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마지막 즈음에 자파가 지니에게 소원을 빌어 마법사가 된 뒤 기사병들한테 끌려갈 때 '자스민'이 "백성들을 어떡해 하킴!"이라는 대사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이 잘 드러났다.

나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 '자스민'이 백성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나도 나의 친구들을 소중히 여겨 여자애들이 나의 친구를 건들 때 나서서 지켜주는 편이다.그리고 나도 '자스민'처럼 나의 외모평가를 하는 것을 싫어한다.(하지만 나도 조금은 내가 귀엽다고 생각한당)w짱긔!/내가 생각하는 영화에 대한 전체적인 소감은 개인적으로는 살짝 지루해질 때도 있는데 중간중간마다, 노래가 나와서 지루함을 훅! 날려주고 톡톡없이 노래하면 안 어울릴 수 있는데 찰떡 같이 잘 어울렸다. 그리고 노래 때문에 신이 나는데 연기가 다시 진중하게 해주어 물입이 빨리웠다. 개인적으로는 애니메이션보다 훨씬 재밌다. 아무리 실사판이 애니메이션을 본따 만든거라 해도 나는 실사판이 더 재밌고 만약 '알라딘'영화를 내가 처음 봤다면 나는 애니가 실사판을 본따 만든거라 생각 할 것 같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영화 본 소감을 한 줄로 정리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역시 애니보다는 실사판이 더 재밌다."라고 할 것이다.